아저씨도감 번역

### **1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이와시로 아저씨 도감
* **왼쪽 위 그림:**
  + 나마모노 (날 것, 생물)
  + 이노시 운송
  + "아저씨에게 만나러 가는 것은 지금밖에 없다. 모든 아저씨는 나마모노이기 때문이다."
* **오른쪽 위 글:**
  + 이와시로로 갈까?
  + ▶간다!
  + 니혼마츠시 관광연맹
  + <https://www.nihonmatsu-kanko.jp/>
  + 이와시로 관광협회
  + <https://evergreen-net.jp/>
  + 아니면 그냥 살기
  + 이와시로 메종
  + <https://satoyama-maison.org/>
  + 가지 않는다
* **오른쪽 아래 글:**
  + 그래, 이건
  + 인생의 '모험의 책'이다.
* **본문 내용:**
  + **'아저씨 도감'의 이어지는 이야기**
    - 이와시로 아저씨 FC(팬과 재미의 두 가지 의미를 담은 팬클럽)에서는, ‘지역의 아저씨’들을 만날 수 있는 팬미팅과 지역 투어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와시로 아저씨에게 흥미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은, 꼭 ‘이와시로 아저씨 FC’에 가입해 주세요. 이와시로 아저씨와 FC 회원 여러분의 쌍방향 소통을 목표로 합니다.
  + **'이와시로 아저씨'에게 물어보세요**
    - 이와시로의 지역 정보를 메일로 정기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새롭게 '아저씨의 세계'에 진입한 '신 아저씨'나, 이와시로의 이벤트, 특산품, 유익한 정보 등도 소개해 드립니다.
  + **이와시로 아저씨 FC 가입**
    - <https://forms.gle/dmntHGE2bJWZsYs58>
  + **접수 마감** 2025.5.5
  + **연회비** 무료
  + **아저씨 FC 가입 주문**
    - 오바마에게 이 이도
    - 스기사와의 오오스기 만닝코모리 지조손
    - 캇센바의 시다레자쿠라 히야마
    - 하야마 링고 나메츠 온천
    - 회원 가입 시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무탈하게 아저씨가 될 수 있는 부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 **이 책자, 게재된 아저씨에 대한 문의**
    - iwashiro.ojisan@gmail.com
    - 〒964-0392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 오하마자 키타츠키야마 27
    - 발행일: 2023-88.81
    - 발행: 이와시로 관광협회 / 이와시로 아저씨 FC
    - 기획: 니혼마츠시 이와시로 관광협회 지역 활성화 협력단
    - 이와시로 관광협회 지역 활성화 협력단
    - 편집: 무토 코토미, 후루마 마나미 외

**1페이지 요약:**

이 페이지는 '이와시로 아저씨 도감'이라는 책자를 홍보해요. 이 책은 '이와시로' 마을의 특별한 아저씨들을 소개하는 '인생의 모험의 책'이래요. 아저씨들을 더 잘 알고 싶다면 '이와시로 아저씨 FC'라는 팬클럽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재미있는 주문을 외우면 '아저씨가 될 수 있는 부적'도 선물로 받을 수 있대요.

### **2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모험의 시작의 책
* **본문 내용:**
  + **「아저씨」**
    - 그 울림을 듣고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 세상에서는 멋진 아저씨를 '이케오지'라고 부르는 것 같다. 굳이 '멋짐'을 붙인다는 것은, 기본 '아저씨'는 멋지지 않다는 것이 대전제인 걸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포동포동한 아기도, 반에서 인기 많던 그도, 사랑하는 남편도 결국 모두 '아저씨'가 되는데 말이다.
  + **「아저씨는 쓰러뜨려야 할 상대인가?」**
    - **「세대 차이!」**
    -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상대인가!?」**
    - **「아저씨=인생 내리막길!?」**
  + **「우리나라 일본에는,** 수많은 시골이 존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 이와시로 지역도 그중 하나다. 어린이 수보다 아저씨 수가 더 많다. 젊은이 수보다 아저씨 수가 더 많다. 지역이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면, 이와시로 지역의 약 40%는 아저씨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골 아저씨들에게는 은퇴가 없다. 직업인으로서 현역이 끝나도, 지역 사람으로서의 현역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멋진지 멋지지 않은지 하는 단순한 말로는 판단할 수 없는, 아저씨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것들이 뒤섞여, 시골은 만들어진다.
  + **「시골을 지탱하는」**
  +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저씨들의 특징, 매력, 삶의 방식을 여기에 기록한다.」**
  + **「모험의 필드」**
  + **「어서 오세요, 이와시로에.」**
  +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 이와시로 지역
  + 시골 지수 ★★★★ 80%
  + 이와시로 인구: 5,881명 [2023.1.1]
  + 아저씨 비율: 약 40%(전체 인구 중 40세 이상 남성)
  + 남성 전체에서 40세 이상 비율은 74%로, 더 충격적!
  + 저 다테 마사무네도 여기서 아저씨 수련을 했다고(?) 젊은 시절의 마사무네가 머물렀던 성터가 남아있다네!
  + **「이와시로 아저씨 도감 보는 법」**
  + 후쿠시마 시골에 서식하는 아저씨 20명의 생태를 조사해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저씨들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각 아저씨의 특징, 취향, 가치관을 이 도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아저씨 입문서'로 활용해 주세요.
  + **「이 아저씨의 최대 매력」**
  + **「아저씨 기본 데이터」**
  + 레벨=현재 나이 등
  + **「아저씨와 연관된 지역의 장소」**
  + **「목차」**
    - 모험의 시작의 책 P1~2
    - 아저씨 개체 도감 P3~22
    - 아저씨 잡학 P23
    - 아저씨의 속성 P24
    - 아내와 아저씨 P25-26
    - 아저씨가 된다는 것은? P27
    - 아저씨의 중얼거림 P28
    - 전설의 아저씨 P29-30
    - 아저씨의 서식지 이와시로 지도 P31
    - 이와시로 관광협회 회장으로부터 P32-33
    - 미래의 아저씨에게 P34
* **왼쪽 아래 글:**
  + 언젠가 당신이,
  + 이와시로 지역을 모험하기 위한 가이드북으로.
  + 그리고, 언젠가
  + '당신이 아저씨가 되는 그 날'까지의 인생의 길잡이로.
  + **「레벨은 2023년 5월 1일 기준 만 나이.」**
  + **「아저씨의 레벨은 날마다 오르고 있다!」**
  + **「이 책자는 2023년 5월 1일 현재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페이지 요약:**

이 페이지는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줘요. 아저씨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후쿠시마현 이와시로 지역에는 아저씨가 정말 많고, 그들이 마을을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설명해요. 이 책은 이와시로의 아저씨 20명의 특징과 삶을 기록한 '아저씨 입문서'이며, 나중에 당신이 아저씨가 될 때 길잡이가 되어 줄 거래요. 목차를 보면 아저씨들의 개별 프로필부터 아저씨 잡학, 아내와의 이야기 등 재미있는 내용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3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도감 No.01 , No.02
* **왼쪽 아저씨: 오오우치 히데카츠(Ouchi Hidekatsu)**
  + **레벨:** 57
  + **출몰지:** 오오우치 이발소 · 이와시로 각지
  + **신장:** 약 177cm
  + **별자리:** 전갈자리
  + **혈액형:** B형
  + **속성:** 가업 승계 계열
  + **약점:** 추위에 약해서 일 년 내내 복대를 떼어 놓을 수 없다.
  + **이야기: 가위와 카메라와 풀베는 기계를 다루며, 산의 미용을 시작했습니다!**
    - 젊은 층부터 고령자까지 지역 남성들의 많은 신세를 져 온 오래된 이발소입니다. 이발소라고 하면 지역의 소문이나 가십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 하지만 여기에 모이는 것은 뜬소문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엄연한 지역 정보입니다. 이발소 방에는 향토 자료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자료, 문헌, 사진이 쌓여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즉시 가위와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향하여, 후쿠시마 민보의 '고향 기자'로서 발신합니다. PTA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5년경, 친구와 후배의 급사(갑작스러운 죽음)가 잇따르며 인생의 짧음,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전국 시대의 유적을 지키는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머리뿐만 아니라 산까지 깎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발사. 때로는 보도맨. 때로는 초등학교 강사……. 겉보기에는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은, 이발소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한 고향 사랑 때문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 **오오우치 씨와 '사람을 기다리는 지장 벚나무'**
    - 최근 인기가 많은 사진 명소. 주목받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유채꽃밭과 벚나무에, 아다타라산이나 할머니를 더한 오오우치 씨의 사진입니다. 오오우치 씨가 지나간 자리에는 관광 자원이 생깁니다. 또한, 오오우치 씨의 페이스북은 마치 지역 정보지 같습니다. 역사적 자료나 에피소드가 신문보다 빨리 실립니다.
* **오른쪽 아저씨: 안자이 슈이치(Anzai Shuichi)**
  + **레벨:** 66
  + **출몰지:** 토리이마치 · 마키고야 앞
  + **신장:** 약 171cm
  + **별자리:** 천칭자리
  + **혈액형:** O형
  + **속성:** 멋진 아빠 계열
  + **약점:** 거미
  + **습성:**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장작 난로에 불을 피워 방을 따뜻하게 해 놓는다.
  + **이야기: 폴리시 없는 '좋은 정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상냥함**
    - 체격이 좋고, 목소리가 크며, 눈빛이 강하고, 동작이 민첩하여, 험상궂은 강경파로 보이기 쉽다(별명 '오니가와라'). 하지만, 막상 본인과 마주하면 그런 선입견은 모두 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현역 시절에는 엄격한 면모를 보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딱딱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라고 단번에 말합니다.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지 않는다"가 좌우명으로, 무슨 일이든 여유롭게 대하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여유가 있어야 타인에게도 관대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량이 넓고, 일은 깔끔하게 처리하지만, 놀 마음도 잊지 않습니다. 또한, 유별나게 친한 부녀 관계도 유명합니다. 딸들에게 멋진 뒷모습을 보여주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딸 이야기가 나오면 부드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믿음직한 아버지이며, 언제나 유쾌한 아저씨입니다.
  + **안자이 씨의 추억의 '이와시로 도서관'**
    - 안자이 씨가 책 선정에 관여했던 이와시로 도서관. 녹색이 넓게 펼쳐진 정원과 아다타라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인기입니다. 이와시로 지역 시절에는 '책은 모두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마을 주민 외에도 대출을 허용했던 개방적인 장소였습니다(최첨단 도서관이었을지도!?). 참고로 안자이 씨는 한 번 읽은 책은 다시 읽지 않는 타입입니다.
* 아래 그림: 노리오쿠의 계승
  + 아들도 또 다른 카메라 기술과 일을 이어받으려고 한다.
  + 함께 일하는 두 사람과 두 사람의 애용 카메라 니콘.

**3페이지 요약:**

두 명의 아저씨를 소개해요. 왼쪽의 오오우치 아저씨는 이발사인데, 머리를 깎는 것뿐만 아니라 산을 가꾸거나 마을의 역사도 기록해요. 오른쪽의 안자이 아저씨는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족을 아끼고 여유를 즐기는 멋쟁이 아빠래요. 이 두 분 모두 자신이 사는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 **4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도감 No.03 , No.04
* **왼쪽 아저씨: 사쿠마 마사루(Sakuma Masaru)**
  + **레벨:** 67
  + **출몰지:** 시내 서점 , 사회 복지 협의회 및 상공회 근처
  + **신장:** 약 172cm
  + **별자리:** 염소자리
  + **혈액형:** B형
  + **속성:** 음식점 계열 · 정치 계열 · 책벌레 계열
  + **자랑스러운 기술:** 35~50세는 옛 이와시로 마을 의원을 지냈다. 어머니를 돌봐야 할 때 정치를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가업을 이었다.
  + **이야기: 음식점 주인인데도... 삼시 세끼 밥보다 책이 좋아?**
    - 독서량이 상당해서, 식당이 쉬는 매주 월요일은 서점 순회를 한다. 역사 소설, 형사물, 정치 서적을 즐겨 읽는다. 매일의 틈새 시간이나 잠들기 전 독서는 '삶의 즐거움'이다. 자신의 방뿐만 아니라 사가미야 식당에도 많은 책이 넘쳐나고, 손님들과 독서 토론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한다. 가무와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예능인 가족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 배운 장편 가요 낭곡의 가락은 '프로 뺨'이다. 또한, 인생의 신조는 GNN(의리·인정·정이 있는 삶), 아츠미 키요시가 연기한 방랑자 토라지로와 나카무라 키치에몬이 분한 오니헤이를 사랑하고, 스모 중계에 열중한다...라고 들으면, '정통파. 더 아저씨'다. 하지만 고집불통 아저씨가 아니라, 아내에게는 상냥하고 자식을 몹시 사랑한다. 그의 특기인 손재주, 상냥함, 성실함,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세 아들에게 각각 계승된 것처럼 보인다.
* **오른쪽 아저씨: 와타나베 요시카츠(Watanabe Yoshikatsu)**
  + **레벨:** 63
  + **출몰지:** 시내 전역 · 현내외 야구장
  + **신장:** 약 180cm
  + **별자리:** 전갈자리
  + **혈액형:** A형
  + **속성:** 엔지니어 계열 · 상남자 계열
  + **습성:** 말은 맵지만 미각은 매우 단 것을 좋아한다. 커피에는 설탕과 우유를 듬뿍 넣는다. 일본식 과자도 매우 좋아해서 "팥소는 이단이야. 팥앙금을 먹어!"라고 눈을 부릅뜬다!!
  + 이야기: 현장에서도 감독. 야구장에서도 감독.
    - 가파른 언덕과 좁은 길이 많은 이와시로에서 하이에이스를 몰고 다니며, 마치 에도 시대 사람처럼 기세 좋고 빠르게 말한다. 흑백을 분명히 한다. 거친 후쿠시마 사투리에는 위압감마저 있어, 여유로운 시골 아저씨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일을 부탁받으면, 상대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 이주해 온 외부인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고, "더 싸고, 더 살기 좋고, 더 사용하기 좋게"라며, 의뢰 이상의 최적의 방법을 함께 찾는 그의 일처리는 그야말로 '대들보'다. 회사 경영자이면서도 명함을 갖고 있지 않고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데 일이 저절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는 한가할 틈이 없다. 겉치레가 아닌 천생 '형님'이다. 현장 일은 아침 일찍 시작하지만, 주말 야구는 더 일찍 일어난다. 환갑을 넘어서도 여유만만!
  + **현역 선수 겸 감독이다.**
    - 투수, 타격, 주루는 물론, 포수·감독·심판까지 맡는 '투잡'이다. 현외 원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 **팬이 많은 와타나베 건축**
    - "이요, 대들보! 성격이 시원시원한 건 천하 제일. 못 하나만 박아 달라고 해도 와 주는 목수"라고 불릴 만큼, 지역에서 사랑받고 의지되고 있다. "남자다운 의리로 일해 주는, 이런 사람은 달리 없어!!"라고 이주해 온 부부도 이 형님 같은 면모에 매료되었다.

**4페이지 요약:**

두 명의 아저씨를 더 소개해요. 왼쪽의 사쿠마 아저씨는 식당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책을 정말 좋아하고 독서량이 엄청나요. 겉으로는 고집이 세 보이지만,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아주 다정한 분이래요. 오른쪽의 와타나베 아저씨는 건축 회사의 사장님인데, 말은 무뚝뚝하지만 부탁받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는 믿음직한 '형님' 같은 분이에요.

### **5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도감 No.05 , No.06
* **왼쪽 아저씨: 사이토 카츠아키(Saitoh Katsuaki)**
  + **레벨:** 64
  + **출몰지:** 히야마 캠프장 , 자택 작업실(남자의 은신처)
  + **신장:** 약 170cm
  + **별자리:** 염소자리
  + **혈액형:** O형
  + **속성:** 전 체육회 계열 · 쇼와 아이돌 계열
  + **특기:** 다재다능한 취미. 작업실에 장작 난로, 스테레오, BOSE 스피커를 두고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퍼터 연습 등을 즐긴다.
  + **이야기: 지친 사람에게 느슨한 힐링 파워를 쏴주는 아저씨**
    - 붙임성 좋은 미소로 스스럼없이 말을 건다.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만끽하는 붙임성 좋은 아저씨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때는 다른 사람이었다. 육상 선수·소방관으로 활약하며, 전국 구조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엄격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영광의 정상에서 좌절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심하게 침체했다. 하지만, 본인 말로는 "일단 무너지니, 긴장했던 심신이 한순간에 느슨해졌다"고 한다. 상처받고 고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긴장이나 피로를 민감하게 감지한다. 특별한 감지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유의 말투로 지나치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주는 '힐링 파워'도 갖추고 있다. 한편, 조형이나 그림 그리는 것도 매우 좋아한다. 이와시로 문화제 외 후쿠시마현 아트전에도 출품한다. "빛을 그리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빛과 그림자가 모두 있어야만 형태가 생긴다"고 철학하면서 그림 붓을 잡는다. 칼날을 혼자 묵묵히 가는 것도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인생에서 길을 잃은 사람, 한창 고군분투하는 사람, 시골에서 느슨해지고 싶은 사람, 이 아저씨를 만나러 오세요.
* **오른쪽 아저씨: 스가노 덴쥬(Sugeno Denju)**
  + **레벨:** 69
  + **출몰지:** 심상의 우주 , 그림 전시회장(전국 각지)
  + **신장:** 약 160cm
  + **별자리:** 쌍둥이자리
  + **혈액형:** O형
  + **속성:** 예술 계열 · 신비 계열
  + **음악:** 막막할 때는 "What a Wonderful World"를 듣고 다시 창작에 몰두하게 된다.
  + **이야기: 캔버스에 그리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부드러운 우주**
    - '이 화가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고 작품을 본 사람들은 상상에 잠긴다. 이세계의 숲에서 고양이나 신비한 생물들에 둘러싸여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의 이와시로에서 생업을 가지고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있다. 나무 열매나 잎사귀를 주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 한없이 풍부한 창조 공간이 있는 것이다. 예전에 할머니로부터 들은 옛날이야기나, 자신이 본 꿈에서 영감을 얻는다. 최근 작품의 색조는 밝지만, 희미한 슬픔이 섞인 것이 눈에 띈다. 본인은 "위로를 위해 그린다"고 하는 그림이, 국내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한다. 동화책이나 화집이 출판되어, '이와시로의 미야자와 겐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매우 수줍고 겸손하여, 현지에서도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초 희귀 아저씨'다.

**5페이지 요약:**

이번에도 두 아저씨를 소개해요. 왼쪽의 사이토 아저씨는 힘들었던 과거를 겪었지만, 그 경험 덕분에 남을 위로해 주는 '힐링 파워'를 가지게 되었어요. 오른쪽의 스가노 아저씨는 유명한 화가지만, 실제로는 아주 수줍어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의 그림은 평범한 일상에서 얻은 영감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준대요.

### **6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도감 No.07 , No.08
* **왼쪽 아저씨: 칸노 타다요시(Kanno Tadayoshi)**
  + **레벨:** 86
  + **출몰지:** 시게하라 지구 · 포도밭 , 후쿠시마 농부의 꿈 와인
  + **신장:** 약 165cm
  + **별자리:** 물병자리
  + **혈액형:** AB형
  + **속성:** 전통 예능 · 전통 공예 계열
  + **특기:** 사람의 인격이나 궁합을 꿰뚫어 보는 독특한 감각이 뛰어나다. 지금까지 맺어준 중매는 7쌍으로, 모두 부부가 원만하게 살고 있다. 자녀의 출산·진학·취업·결혼 등 때마다 축하와 위로를 빠뜨리지 않는다.
  + **이야기: 이 사람, 마을의 원로.**
    - "우리 집 할아버지로 삼고 싶은 이와시로 아저씨"를 뽑는다면 단연 1위! 장난기가 있고 따뜻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향토 예능인 북과 춤이 능숙하고, 덤덤한 옛이야기도 깊은 맛이 있다. 그런가 하면 최신 화제에도 풍부하고 이해심이 넓다. 무슨 일이든 대충 하는 법 없이 지역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땀을 흘리고, 존경과 신뢰를 받는 원로다.
    - 한편으로 칸노 씨의 삶이 두드러지는 것은, '도전가'라는 점이다.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과 열정을 겸비하고, 80세에 와인용 포도 재배에 처음 도전했다. 기초부터 공부하여 포도밭을 만들었다(베테랑 농부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5년 후, 레드 와인이 완성되었고, 자택에서 보이는 산을 형상화하여 '하루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칸노 씨는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다음 목표를 내걸고 재배 면적을 더 넓히고 있다. 그 힘든 노동조차 매우 즐거워 보인다. 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그의 뒷모습에 경례하고 싶어진다.
* **오른쪽 아저씨: 사이토 타카히로(Saitoh Takahiro)**
  + **레벨:** 65
  + **출몰지:** 히야마 산 정상 · 산기슭의 농지 , 이와시로 도서관 , 타자와의 세 마리 사자춤 축제장
  + **신장:** 약 179cm
  + **별자리:** 물고기자리
  + **혈액형:** A형
  + **속성:** 지속 가능성 계열
  + **특기:**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이 들리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천부적인 댄서. 전생에는 중세 유럽 사교계에서 가면무도회 단골이었던 귀공자였을지도?
  + **이야기: 이 사람, 마을의 귀족.**
    - "산이 많은 이와시로에서도 유난히 산골에 태어나 자라서, 현재도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이다. 사이토 씨가 예능에 능숙한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문화적이고 지적인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에는 망설이지 않고 도전한다. 그러면 푹 빠져서 열중하고, 어느새 실력을 쌓게 된다. 그것이 악기이고, 사교 댄스이고, 가면 만들기이다. 또한, 방언 연구, 축제, 사진, 요리, 수영, 자연 관찰, 산행, 덫 사냥 등을 탐구하여, 매우 다면적인 사이토 씨가 완성되었다.
    - 최근 열중하는 것은 '재생형 농업'이다. 토양 개량을 자연의 회복에 연결하여,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쿠시마의 외진 곳에서 지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밭에서 꾸준히 실천한다. 이런 진지한 활동도, 사이토 씨에게는 유쾌한 취미 이야기처럼 들려서 신기하다.

**6페이지 요약:**

두 명의 아저씨를 소개해요. 왼쪽의 칸노 아저씨는 80세의 나이에도 포도 농사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분이에요. 오른쪽의 사이토 아저씨는 '마을의 귀족'이라고 불리며,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진 다재다능한 아저씨예요. 두 아저씨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 **7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도감 No.09 , No.10
* **왼쪽 아저씨: 무토 토시카즈(Muto Toshikazu)**
  + **레벨:** 72
  + **출몰지:** 히야마 캠프장 , 전국 각지 ~ 해외
  + **신장:** 약 165cm
  + **별자리:** 물병자리
  + **혈액형:** O형
  + **속성:** 준법 계열
  + **특기:** 조경 관리. 왼쪽 사진의 관리동·현관 옆 조경수가 직육면체로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다. 은퇴 후 독학으로 익힌 무토 씨의 기술이다! 뇌 운동은 장기와 퍼즐, 여행으로 한다.
  + 이야기: 겉과 속이 같고 아첨이나 융통성이 없는 정직한 아저씨. 하지만 마음은 유연하다!
    -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을 한다.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닌데 매일 건강 관리 · 체력 향상에 힘쓴다('후쿠시마 건강 시민 앱'의 열성 사용자. 뇌 운동으로 퍼즐·장기를 즐긴다).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지 않고 위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기적인 가족 여행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계속하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게다가 공평·공정을 관철하는 데 있어 무토 씨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 융통성이나 아첨은 전혀 없다. 타협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없다. 시골 특유의 정서와는 정반대에 서서 흔들림 없는 '걸어 다니는 준법 정신' 같은 존재다. 이렇게 쓰면, 뼛속까지 성실하고 딱딱한 인상인데, 사실은 엔터테인먼트나 음악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멀리 원정을 간다. 아주 유연한 감성으로 '지금'을 최대한 즐기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갭이 매력이자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의외의 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는... 만나서 확인해 보시길!
* **오른쪽 아저씨: 와타나베 코우에츠(Watanabe Kouet)**
  + **레벨:** 74
  + **출몰지:** 오하마 낫토
  + **신장:** 약 165cm
  + **별자리:** 황소자리
  + **혈액형:** B형
  + **속성:** 장인 계열 · 일본술 애호 계열
  + **콩 지식:** 지역 이름을 딴 오하마 낫토는 팬이 많다. 일반적인 '낫토짱'도 추천하지만, 술안주로는 푸른콩 낫토가 일품! 함께 들어있는 특제 다시마 소금을 뿌려 한 알씩 먹는다.
  + **이야기: 누구보다도 콩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낫토 장인'**
    - 4년 만에 열리는 시오마츠 신사 예대제(통칭 '오하마 문장 축제')를 다음 달로 앞둔 밤, 자택에서 촬영한 이 한 장. 마치 술 광고 포스터처럼 보인다. 지역에서도 유명한 일본술 애호가 아저씨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뒤편에는 축제 제등이 켜져 있고, 가문이 새겨진 전통 옷이 걸려 있다. 10월에는 이 전통 옷을 입고 신사 총대인이라는 큰 역할을 맡았다.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며 희로애락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마주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와타나베 씨는 젊은 시절의 고생과 갈등을 잊고, 사소한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 술을 매우 좋아하지만, 과음하지는 않는다. 말 속에는 어른의 여유와 상냥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싶다"고 느끼게 해주는 아저씨다.

**7페이지 요약:**

두 아저씨를 소개해요. 왼쪽의 무토 아저씨는 규칙을 잘 지키는 꼼꼼한 분이지만, 사실은 여행이나 예술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오른쪽의 와타나베 아저씨는 낫토를 만드는 장인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여유를 보여주는 분이래요.

### **8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도감 No.11 , No.12
* **왼쪽 아저씨: 엔도 세이이치(Endo Seiichi)**
  + **레벨:** 67
  + **출몰지:** 히야마 산 속 · 산기슭
  + **신장:** 약 170cm
  + **별자리:** 사수자리
  + **혈액형:** B형
  + **속성:** 디지털 계열 · 와일드 계열
  + **명언:** "워크맨을 입지 않을 때는 상복이다." 그렇다. 엔도 씨의 옷은 전부 워크맨이다.
  + **이야기: 궁극의 마이페이스로 디지털도 와일드도 만끽 중!**
    - 엔도 씨를 알면 알수록 '나무늘보' 같은 생태(주의: '게으름뱅이'가 아니다)가 보인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에너지 절약 모드.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거의 말하지 않는다. 설교·자랑·교훈은 일절 없고, 행동은 '닥치는 대로'다. 일본인 대부분이 '노력은 미덕'이라며 노력의 소중함을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아저씨가 많은 가운데, 엔도 씨는 "매일 9시간은 잔다", "나는 노력하지 않아, 피곤하잖아"라고 태연하게 말한다. 어디까지나 엔도 씨만의 방식이다. 하지만 그렇게 느긋한 엔도 씨도, 사냥 등으로 필요에 몰리면, 2배속은커녕 3배속으로 산을 달린다! 본심 모드가 되면 한순간에 기어를 올린다. 이와시로에는 엔도 씨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옛 이와시로 마을 직원이었던 1996년, 마을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던 엔도 씨는 인구 감소를 예상하고, 전국에 앞서 전자화와 IT화에 힘썼다. 인터넷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직원이 ADSL밖에 모를 때, 혼자서 광통신을 밀어붙여(그 과정에서 혼자서 여러 번 카스미가세키까지 다녔다는 것도 놀랍다), 타임카드를 폐지하고 디지털 관리로 전환했으며, 서류도 가능한 한 데이터화하여 도장의 사용도 줄였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1990년~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다! "그건 대단했어. 세이짱은 지금으로 말하면 디지털청이야"라고 그리워하는 주민이 많다. 하지만 당시 전국에서도 선진적이었던 옛 이와시로 마을의 행정 시스템은 니혼마츠시와의 합병 후, 한순간에 아날로그화되었다…….
* **오른쪽 아저씨: 시게하라 토우쥬(Shigihara Touju)**
  + **레벨:** 80
  + **출몰지:** 히야마 캠프장 , 산야초 모임 & 살롱 근처
  + **신장:** 약 165cm
  + **별자리:** 염소자리
  + **혈액형:** B형
  + **속성:** 엔지니어 계열
  + **특기:** 스스로 정한 루틴에 따라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6가지가 젊음과 건강의 비결. 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쇠퇴를 모른다!
  + **이야기: '인생 100년' '평생 현역'은 이 사람을 나타내는 말**
    - "농부의 장남이면서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어'라고 일하러 갔던 세대. 전후, 도호쿠의 농가는 지금보다 훨씬 고생이 많았고, 생활은 어려웠다. 그러나 일본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농업 형태도 기술도 생활 양식도 완전히 바뀌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65세까지 IT 엔지니어로 일한 시게하라 씨. 지금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SNS도 즐긴다(각 가정에 전화조차 보급되지 않았던 청년기를 생각하면, 그 적응력은 놀랍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대의 격동을 자신의 편으로 삼아 온, 강인한 대선배.
    - 최근 10년은 고향, 히야마 캠프장 관리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캠프장 이용자의 의견이나 감상을 부지런히 찾아보고,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지역의 살림꾼 역할도, 풀베기도 웃으며 해내고, 고령자 살롱을 이끈다. 이 소중한 미소를 보고 '눈이 즐겁다'고 느껴보자!
  + **잔디가 좋은 평판의 히야마 캠프장 텐트 사이트**
    - 히야마 캠프장은 아부쿠마 산계의 명봉 히야마(해발 1,057m) 중턱에 있어, 시원한 기후와 탁 트인 전망이 매력이다. 위아래 두 단으로 나뉜 텐트 사이트는 각각 장점이 있지만, 위쪽의 푹신한 잔디는 "잠자리가 최고!"라며 많은 캠핑족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 잔디 관리의 달인이 시게하라 씨다. 고향의 캠프장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잔디에까지 아낌없이 쏟아지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란다.

**8페이지 요약:**

두 명의 아저씨를 소개해요. 왼쪽의 엔도 아저씨는 평소에는 느긋하게 지내지만, 필요할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나무늘보' 같아요. 1990년대에 이미 마을 행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한 아주 똑똑한 분이래요. 오른쪽의 시게하라 아저씨는 80세가 넘었지만, 꾸준한 운동과 SNS를 즐기며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캠프장 잔디를 관리하며 마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멋져 보여요.

### **9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도감 No.13 , No.14
* **왼쪽 아저씨: 아카누마 에이이치(Akanuma Eiichi)**
  + **레벨:** 80
  + **출몰지:** 스기사와 오오스기 주변 , 마츠즈카타테 공원 , 탁구 경기장 , 현내외 산악 지역
  + **신장:** 약 166cm
  + **별자리:** 사자자리
  + **혈액형:** O형
  + **속성:** 가드닝 계열 · 현역 운동선수 계열 · 덕망 계열
  + **특기:** 등산(국내외 등산 400회) 라지볼 탁구(전국 대회 우승 1회, 3위 2회)
  + **이야기: 뜨거운 지역 사랑으로 황무지를 화원으로 바꾸다**
    - 은퇴 후, 지역으로 돌아와 20년간의 활약이 경이롭다! 먼저, 자택이 있는 스기사와 지구의 구장을 맡았던 2년간, 사재를 털어 지역 자원 조사를 실시. 지형이나 역사, 유형·무형 문화재나 사적 등을 '스기사와의 유산'으로 책에 정리했다. 개인적으로는 취미가 발전하여 자택에 오픈 가든을 조성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황폐해져 있던 사적 주변의 토지 소유자 10명을 설득하여, 전망을 가리던 나무들을 베어내고, 스스로 몇만 그루의 꽃을 심어, 10년에 걸쳐 '경치 좋은 곳'을 만들어냈다. 크라우드 펀딩이 유행하기 전부터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전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호소하여, 모금한 자금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 높은 곳에 있는 사적에서 360도를 내려다볼 수 있는 '다이마츠즈카 타테 공원'을 정비했다. 이 기간 동안 30명이 넘는 찬성자가 모여 보존회를 결성. 풀베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원은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카누마 씨는 매일 아침 산책 삼아 꽃과 나무를 관찰한다. 공원의 정자에는 손수 만든 '식물 도감'이 놓여 있다.
* **오른쪽 아저씨: 와타나베 후미오(Watanabe Fumio)**
  + **레벨:** 75
  + **출몰지:** 각지의 유기농업 실천지.
  + **신장:** 약 170cm
  + **별자리:** 황소자리
  + **혈액형:** A형
  + **속성:** 유기농 계열 · 지속 가능성 계열
  + **예비 지식:** 자면서 '라디오 심야편'(NHK)을 듣는 것이 일과. 좋아하는 연예인은 타카쿠라 켄과 스가와라 분타. 그래서인지, 옛날 스가와라 분타와 조금 닮지 않았나요?
  + 이야기: 자나 깨나 유기농업! 인생을 바쳐, 다음 세대를 키운다!
    - 살충제나 농약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한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은 20대 때였다. 그 이후, 가치관이 바뀌어, 시대에 앞서서 농약도 화학 비료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에 힘써왔다.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풍문 피해까지 겹쳤다. 경제적 어려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현재는 후쿠시마현 유기농업의 1인자다. 일본 유기농업 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2023년 2월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에서 열린 '전국 유기농업 모임 2023'에서는 대회 실행위원장으로서 대성공으로 이끌었다. 젊을 때부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과 반복되는 일을 매우 싫어했다. 자립해서 일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지휘할 수 있는 농업이 성격에 맞았다. 자택 작업장에 숙박 연수 시설을 함께 만들어서, 유기농업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와타나베 씨 밑에서 1년간 연수받고 농부가 된 경우도 많고, 멀리서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많다. 첫 만남에 의기투합하여, 술잔을 기울이며 아침까지 이야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
* **와타나베 씨도 참여 중인 이와시로 메종**
  + 젊은 농업인의 육성을 인생을 걸고 지원하는 와타나베 씨도 참여하고 있는 이와시로 메종은, 이주 지원·이벤트 기획 등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단체. 남녀노소, 이주자도 현지인도, 농부도 자영업자도 회사원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9페이지 요약:**

이번에도 두 명의 아저씨를 소개해요. 왼쪽의 아카누마 아저씨는 은퇴 후에도 마을을 위해 풀밭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고, 탁구 대회에서 우승도 한 대단한 분이에요. 오른쪽의 와타나베 아저씨는 젊은 시절부터 유기농 농업을 연구해 온 '유기농업의 1인자'예요. 젊은 농부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멋진 분이기도 해요.

### **10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도감 No.15 , No.16
* **왼쪽 아저씨: 키쿠치 호보루(Kikuchi Hoboru)**
  + **레벨:** 65
  + **출몰지:** 히야마 파크 골프장 , 이와시로 각지
  + **신장:** 약 175cm
  + **별자리:** 전갈자리
  + **혈액형:** A형
  + **속성:** 상쾌한 운동선수 계열
  + **이야기: 아주 '데마이'(정성스러운)한 배려와 서비스 정신의 화신**
    -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고, 마음을 담아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후쿠시마 말로 '데마이'라고 한다. 키쿠치 씨는 바로 '데마이'의 사람이다.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배려하며, 어떤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소방관으로 정년까지 무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퇴직하는 날 어머니의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다.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인품이 전해진다. 현재는 실버 인력으로서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히야마 파크 골프장'의 관리·운영에서는, '데마이'한 일처리 방식과 밝고 상쾌한 접객으로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부탁하면 파크 골프의 기초도 가르쳐준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때는 풀마라톤에서 3시간 이내 완주를 목표로 했고, 스키 강사이기도 했던 운동선수다. 현재는 오로지 골프를 즐기고 있다. 8명이나 되는 손주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놀림이 가볍다. 손주와 놀 때도 결코 대충 하지 않는다.
* **오른쪽 아저씨: 야마자키 키요노리(Yamazaki Kiyonori)**
  + **레벨:** 65
  + **출몰지:** 농가 민박 세이호엔 , 밭 & 비닐하우스
  + **신장:** 약 167cm
  + **별자리:** 물병자리
  + **혈액형:** A형
  + **속성:** 농업 계열 · 자유주의 계열
  + **습성:** 3분 만에 잠든다! 술과 커피를 아주 좋아한다!
  + **이야기: 모던 재즈를 좋아하는 아저씨**
    -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농가 주부 동료들에게 말을 걸어 국도변 농지에 비닐하우스 채소 직판장을 만들었다. 그것을 '휴게소 사쿠라노사토'로 키워내, 초대 역장으로 활약한 것이 야마자키 씨의 아내·토모코 씨다. 야마자키 씨는 아내를 "이 사람이 없었다면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사랑한다. 그렇다면 혼자 독점하고 싶을 것 같지만, 야마자키 씨는 가장 큰 이해자로서 아내의 사회 진출을 응원해 왔다. 1993년, 야마자키 씨의 격려를 받은 토모코 씨가 유럽 농업 연수에 참가했다. 독일에서 만난 그린 투어리즘에 마음이 끌려 귀국 후에도 연수를 받았다. 휴게소의 요직에서 물러난 후, 드디어 꿈이었던 농가 민박을 부부가 함께 개업했다. 토모코 씨는 지금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여러 직책을 겸임하는 바쁜 아내. 그리고 야마자키 씨는 누구보다도 토모코 씨의 가능성을 믿고 지켜봐 준다. 최고의 파트너로서 함께 걸어가는 이 부부를 그리워하여, 현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끊이지 않는다. 야마자키 씨의 그릇은 매우 커서, 그 그릇 속의 물은 가족은 물론, 민박을 찾은 사람들도 안심하고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가득 차 있다.
* **야마자키 씨와 이야기할 수 있는 농가 민박 세이호엔**
  + '시골 농가 민박'에 기대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갓 수확한 채소 요리와 농업 체험을 연중 즐길 수 있는 것은, 두릅나물, 시금치, 쌀 등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인 부부의 인품에 반해 "제2의 아빠·엄마가 생긴 것 같아요"라며 단골이 속출한다. 직접 만든 요리의 맛과 정성이 담긴 대접으로 시간을 잊게 만드는 숙소다.

**10페이지 요약:**

두 명의 아저씨를 더 소개해요. 왼쪽의 키쿠치 아저씨는 예전에 소방관이자 마라톤 선수였는데, 지금은 골프장 관리인으로 일하며 아주 정성스럽고 친절한 '데마이' 정신을 보여줘요. 오른쪽의 야마자키 아저씨는 아내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농가 민박을 운영하는 멋진 남편이에요. 그의 따뜻하고 넓은 마음 덕분에 민박을 찾는 손님들이 모두 행복해한대요.

### **11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도감 No.17 , No.18
* **왼쪽 아저씨: 칸노 이츠로(Kanno Itsuro)**
  + **레벨:** 75
  + **출몰지:** 히야마 파크 골프장 , 산기슭 밭
  + **신장:** 약 161cm
  + **별자리:** 사자자리
  + **혈액형:** O형
  + **속성:** 서바이벌 계열 · 엔지니어 계열
  + **특징1:** 싱어송라이터 '오구라 케이'를 닮았다는 말을 듣는다.
  + **특징2:** 평균 수면 시간 4시간의 쇼트 슬리퍼.
  + **먹는 습성:** 떡, 전병, 오뎅이 서툴다.
  + **이야기: 히야마 파크 골프장의 오구라 케이!?**
    - 좌우명은 야마모토 이소로쿠(옛 일본 제국 해군의 장군)의 말, "해 보이는 것, 말해 들려주는 것, 시켜 보는 것, 칭찬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하며, 도쿄의 기업에서 오랫동안 경영과 인재 육성에 종사해 왔다. 부부가 이와시로로 돌아와 실버 인력으로 일하는 지금도, 직무에 충실한 진정한 '일꾼'이다. 참모·매니저가 천직이다.
    - 또한, 타고난 손재주와 미적 감각은 평소 생활에 마음껏 발휘된다. 특히 놀라운 것은 요리 감각. 매년 만드는 오리지널 산나물 요리는, 곰취 줄기와 산초를 짝지은 일품. 우아하고 섬세한 맛이다. 그 재료는 봄의 아주 잠깐, 불과 1주일 정도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고향의 자연에 익숙해져, 먹을 수 있는 야생 식물이나 버섯, 독성 식물이나 곤충 등을 잘 아는 야생인이기도 하다.
* **오른쪽 아저씨: 사이토 칸이치(Saitoh Kanichi)**
  + **레벨:** 74
  + **출몰지:** 하야마 산기슭 · 휴게소 사쿠라노사토 , 휴게소 후쿠시마 히가시와 근처
  + **신장:** 약 160cm
  + **별자리:** 쌍둥이자리
  + **혈액형:** B형
  + **속성:** 농업 계열 · 큐피드 계열 · 힐링 계열
  + **습성:** 사실 술을 못 마신다. 일본 술 문화를 자랑하는 후쿠시마의 아저씨 세대에서는 드물다? 회식에는 콜라를 들고 간다!
  + **이야기: 사과밭에서 촬영인데 칸짱이 사과보다 더 빨간 옷을 입고 왔어~!**
    -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갑옷을 입고 있지만, 사이토 씨는 갑옷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맨몸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자신과 타인 사이를 벽으로 나누지만, 그런 벽도 없다. 무엇을 제안받아도 '노'라고 말하지 않는, 뛰어난 '예스맨'이다. 부정하거나 말리지 않고, "일단 해보자", "시켜보자"는 자세가 일관되어 있다. 그 관대함의 바탕에는, 농가의 분가로서 고생했던 아버지의 유언이 있다. "자신이 울더라도 남을 울리지 마라. 사람이 있어야만 자신이 있다. 세상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라"라고. 마을 의원이나 농업 위원을 지냈던 아버지를 본받아, 사이토 씨도 마을 의회·시 의원, 농업 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기업 조합 사쿠라노사토 대표 이사다. 그 경험을 거쳐 확신한 것은, 인간의 가치는 입장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농부가 되어서 다행이야. 매우 만족해!"라고 웃는다. 지역 사람들은 물론, 아내 미네코 씨에게도 '칸짱'이라고 불린다. 둥글고 생글생글 웃는 얼굴의, 그야말로 모두의 칸짱!
* **칸짱이 이끄는 휴게소 사쿠라노사토**
  + 사이토 씨가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휴게소. 입소문으로는 '수수하다'는 평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그 수수함이나 자기 분수에 맞는 상품이야말로 사쿠라노사토 방식. 기발한 음식보다 "다시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주먹밥", "심신이 편안해지는 음식"을 제공하는, 참으로 이와시로다운 휴게소다. 작은 휴게소라고 얕보지 마라, 그 노력을 인정받아, 내각총리대신상도 수상했다. 가을과 겨울에는 사이토 씨가 재배하는 '환상의 사과'(열성 팬 & 단골이 있어 시장에 유통되는 수가 적다!)도 판매된다.

**11페이지 요약:**

이번에도 두 아저씨를 소개해요. 왼쪽의 칸노 아저씨는 매니저처럼 일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그는 잠을 조금만 자도 되는 '쇼트 슬리퍼'이기도 하대요. 오른쪽의 사이토 아저씨는 술을 못 마시는 드문 아저씨인데, 항상 "일단 해보자"고 말하며 남을 돕는 '모두의 칸짱'이라고 불려요. 그가 이끄는 휴게소는 소박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상을 받기도 했대요.

### **12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도감 No.19 , No.20
* **왼쪽 아저씨: 이토 히데오(Itoh Hideo)**
  + **레벨:** 71
  + **출몰지:** 휴게소 사쿠라노사토 · 만인코모리지조손 · 시오마츠 신사
  + **신장:** 약 164cm
  + **별자리:** 쌍둥이자리
  + **혈액형:** O형
  + **속성:** 신비 계열 · 축제 광 계열
  + **필살기:** 가면을 쓰는 기술 · 변신의 기술
  + **이야기: '강물처럼, 구름처럼...'이라는 신조대로, 유연하고 즐거운 사람**
    - 전통 있는 '만인코모리지조손'의 총대, '시오마츠 신사' 총대회 서무라는 '성스러운 직책'을 겸임하는 것에서, 지역에서 그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 알 수 있다. 좌우명은 사람이 다투지 않고, 모두가 납득할 때까지 잘 이야기하고,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라는 가르침인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이다. 누구에게나 부드러운 이토 씨에게 딱 맞는 말이다. 분명, 뼛속까지 성실한 성격으로, 딱딱한 일은 누구보다 잘할 것 같지만, 지역 회식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발휘한다. 느슨해지는 것을 넘어 흥겹게 분위기를 띄운다. '이와시로 제일의 바람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 그런 이토 씨는 매년, '오하마의 문장 축제'가 다가오면 피가 끓는다. '눈에 띄고 싶다, 자신의 멋진 모습을 많은 암컷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수컷의 본능이다'라고 말하며, 어릴 때는 축제를 운영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동경심으로, 젊은이 모임에 들어가 인생을 배우고, 축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 현재는 신사 측의 중요한 직책에 있다. "젊은이 모임은 사회의 축소판, 축제는 인생 그 자체.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 **오른쪽 아저씨: 와타나베 슈이치(Watanabe Shuichi)**
  + **레벨:** 76
  + **출몰지:** 나메츠 온천, 히야마 산기슭, 아이즈 각지
  + **신장:** 약 158cm
  + **별자리:** 물병자리
  + **혈액형:** O형
  + **속성:** 보스 계열 · 사랑받는 계열
  + **특기:** 젊은 시절 사교 댄스를 배웠지만, "상대방의 발을 밟기만 해서 그만뒀다"고 말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술을 마시며 치크 댄스로 교류를 깊게 하곤 했다고 한다.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사랑받는 캐릭터'다.
  + 이야기: 온천의 정령!? 아니, 솜씨 좋은 조합장이다~!
    - 니혼마츠시의 비탕 '나메츠 온천'은 아부쿠마 고원의 명봉 히야마의 산기슭, 계곡 옆에 있는 당일치기 온천이다. 와타나베 씨는 이 온천을 운영하는 나메츠 온천 관리 운영 조합의 조합장이다. 기계 만지기나 농기구 수리가 취미로, 일상적인 일은 경트럭, 좋아하는 아이즈 드라이브는 승용차로, 차를 구분해서 생활한다(이 방식은 시골에서는 전형적이다). '조장'이라고 불리며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다. 고향에서 태어나 쭉 그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메츠 온천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온천 사랑도 대단하다. 어릴 때부터 온천의 효능을 모두 빠짐없이 받아서인지, 피부가 곱고 매끈한 매우 상냥한 아저씨다.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귀여운 미소에 치유되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와타나베 씨가 온천의 정령이기 때문일 것이다. 온천의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일터에 오가는 길도 여러 루트가 있어, 지역 순찰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12페이지 요약:**

두 명의 아저씨를 더 소개해요. 왼쪽의 이토 아저씨는 평소에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분이지만, 마을의 축제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축제 광'이래요. 오른쪽의 와타나베 아저씨는 온천의 조합장인데,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피부로 '온천의 정령'이라고 불려요. 두 분 모두 마을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 **13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아저씨 잡학
* **본문 내용:**
  + **아저씨라는 물고기가 있다.**
    - 일본어로는 鬚(수염 수), 魚(물고기 어)라고 쓴다. 주로 온난한 해역에 서식한다. 아래턱에 두 개의 긴 수염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소에는 턱 아래의 홈에 접어 넣고 다니며, 먹이를 먹을 때는 수염을 펴서 모래나 진흙 속의 작은 생물 등을 빨아들인다. 크기는 평균 20cm 정도이며, 튀기거나 뫼니에르로 만들면 맛있다.
* **아저씨 나이 일람**
  + 한 번쯤 본 적 있는 그런 캐릭터, 이런 캐릭터. 당신이 상상한 40대, 50대 아저씨의 모습은?
    - 20대: 무스카 대령 (천공의 성 라퓨타) 28세
    - 30대: 샤아 아즈나블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아) 34세 , 노하라 히로시 (짱구는 못 말려) 35세 , 모리 코고로 (명탐정 코난) 38세 , 붉은 머리 샹크스 (원피스) 39세
    - 40대: 사쿠라 히로시 (마루코는 아홉 살) 40세 , 바보 아빠 (천재 바보) 41세 , 히코 세이쥬로 (바람의 검심) 43세 , 유파 님 (바람의 계곡의 나우시카) 45세 , 야마다 덴조 (닌자보이 란타로) 46세 , 네모 선장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46세 , 이카리 겐도 (신세기 에반게리온) 48세
    - 50대: 오키타 쥬조 (우주전함 야마토) 52세 , 이소노 나미헤이 (사자에상) 54세 , 오키드 박사 (포켓몬스터) 55세
    - 60대: 킹 브래들리 (강철의 연금술사) 60세 , 조셉 죠스타 (죠죠의 기묘한 모험 3부) 68세 , 아톰 박사 (철완 아톰) 68세
    - 70대: 옹지 (알프스 소녀 하이디) 70세
    - 초인: 알버스 덤블도어 교장 (해리 포터) 116세 , 무천도사 (드래곤볼 Z) 354세
* **이와시로 아저씨의 속성**
  + 이번 취재에서 얻은 인상과 아저씨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기 진단 차트를 바탕으로, 좌표 위에 나열해 보았다. 이와시로에서의 '아저씨 퀘스트' 시 참고해 주길 바란다. 실제로 각 아저씨를 만나 이야기하고, 숨겨진 특성이나 알려지지 않은 매력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은, 모험가에게 더없이 빛나는 성공 경험이 될 것이다.
* '에, 할아버지잖아!' 라고 생각한 당신에게.
  + 아저씨 도감이라고 쓰여 있지만...
  + **결론부터 말하면, 시골의 현역은 길다.**
  + 그리고 시골의 젊은이와 아저씨와 할아버지의 정의는 수도권에 비해 20년 정도 차이 난다!(체감)
  + 시골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지역 사회의 거리가 가깝고 빈번하게 공개적으로 나설 기회가 많기 때문일까. 어쨌든, 이와시로에서는 '아직 젊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 아저씨는 신장에서 한 박자 늦다
    - 이 도감을 위해 신장을 물어본 결과, 많은 아저씨들이 "나는 더 키가 컸었는데"라고 말했다. 슬프게도, 사람은 성장의 정점을 지난 후에는 '줄어든다'! 이런 변화는 노화를 자각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수명이 늘어난 현대에는, 신장이 줄어들기 시작한 '아저씨 시기'가 멋진 몸을 자랑했던 '청년기'보다 훨씬 길다. 조금 줄어들어야 맛이 진해진다는 생각도 있다.

**13페이지 요약:**

이 페이지는 아저씨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려줘요. '아저씨'라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 만화 캐릭터들의 나이로 아저씨의 나이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와시로 아저씨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지도도 있어요. 특히, 시골에서는 '아저씨'라고 불리는 나이가 도시보다 늦다고 말하며, 나이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줘요.

### **14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아내와 아저씨
* **본문 내용:**
  + **사쿠마 씨: 쑥스러움 많은 애처가**
    - 인터뷰 설문지에 '처음 만난 이야기'를 물었더니 '비밀'이라고 썼다. 하지만, 막상 물어보니, 만나서 결혼까지의 멋진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다 ♥ 첫 데이트는 영화관!
  + 세이이치 씨:
    -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보고 맛있을 것 같아 만든 요리를 냉장고에 넣어 두면 어느새 사라져. 아내와 딸이 먹어치우지".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 아카누마 에이이치 씨:
    - 그야말로 열정을 함께하는 부부! 집 앞을 함께 대대적으로 고쳐서, 현재는 니혼마츠시의 오픈 가든으로서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멋진 정원이 되었다.
  + 이토 히데오 씨:
    - 일터에는 매일, 도시락 통에 담긴 맛있는 애처가 도시락이! "사진을 찍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몇 번을 찾아가도 취재 거부. 원래 시골 아저씨는 첫 번째는 쑥스러워서 거절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일. 하지만 이토 씨의 도시락은 몇 번을 가도 도망가신다! "혼날 거야~"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싱글벙글 웃으며, 우리들의 취재를 계속 피하는 것은 아마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일까?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다 ♥
  + 안자이 슈이치 씨:
    - 애처가 도시락. 헤어컷과 스타일링은 아내가 담당!
  + 사이토 카츠아키 씨:
    - 사귈 때 처음 집에 데려갔을 때, 어머니가 "너를 따라와 줄 사람은 그 아가씨야"라고 말했다. "그 말대로 되었지."라고 회상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행운은, 이 사람을 만난 것과 결혼한 것이라고 공언한다. 사랑하는 아내 삿짱은 "성실하고 꼼꼼하며, 설거지 하나도 대충 하지 않아. 예초기 2대를 다루는 풀베기 명인. 일본 최고의 아내야 ♥"라고 말한다. "빨리 '아주머니 도감' 취재하러 와줘~"라고 편집부를 재촉할 정도로, 아내를 보여주고 싶어 못 견뎌하는 초 오픈형 애처가.
  + 무토 토시카즈 씨:
    - 국내외로 자주 함께 여행을 간다. 중년 부부의 홋카이도 7박 8일 여행은 최고!
  + 와타나베 코우에츠 씨:
    -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외출할 때면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고 꼭 말한다.
  + 칸노 타다요시 씨:
    - "고맙지. 60년이나 함께 있어 주었어.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좋아. 나에게 아내만큼의 머리가 있었다면,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85세가 된 아저씨가 담담하게 말한다.
  + 오오우치 히데카츠 씨:
    - "고등학교 동창과 연애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미용사가 되어 준 아내와 둘이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건물 하나, 입구 두 개의 등 맞댄 가게에서, 매일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일하고 있다.
  + **아내의 마음을 꿰뚫은 프러포즈**
    - **"Shall We Dance?"**
    - "프러포즈는요?"라는 질문에 즉답. 농담인가? 야쿠쇼 코지인가? 너무 멋있다. "아니요, 정말 그랬어요."라고 아내의 증언을 얻었다. 사교 댄스 동아리에서 만난 부부이기에 가능한 일.
* **오른쪽 아래 글:**
  + "프러포즈는 없었어."
  + "시골로 데려왔기 때문에, 아내의 가족은 반대도 했어. 하지만,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정했으니 물러서지 않아. 남자잖아."
  + 프러포즈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지금처럼 라인으로 바로 연락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집가는 딸을 걱정한 가족도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자!'라고 결심하게 한, 젊은 시절의 아저씨와 멋진 사람을 알아본 아내에게 박수를 보낸다!"

**14페이지 요약:**

이 페이지는 아저씨들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았어요. 프러포즈가 없는 결혼도 있지만, 서로를 믿고 아끼며 살아가는 아저씨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아내를 자랑하고 아껴주는 아저씨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대요.

### **15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땅과 함께 살아가는 아저씨'의 그 너머에.
* **본문 내용:**
  + 우리는 이 기획에서 '아저씨'를 상징적인 존재로 단순화했다. 하지만, '아저씨'라는 속성 그 너머에 있는 '개체 차이'는 지금까지의 경험·사건·생각의 집합체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고민하는 일본의 많은 마을에는, 그 '아저씨 개체'들이 지금도 현역으로 연륜을 새기고 있다. 바로 그 점을 재확인하는 취재였다. 지방에서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나 가치관이 마을·지역 상황에 반영되기 쉽다. 이 도감에 실린 아저씨들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거나, 장사를 하고 있다.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 봉사 활동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시골은 사는 곳과 삶의 방식의 거리가 가깝다"고 말했던 이주민이 있었다. 그들의 일도, '○○ 씨가 해준 일'로서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 **'이와시로 아저씨 도감'의 전설의 아저씨.**
* **미우라 요시로(Miura Yoshirou)**
  + **레벨:** 85
  + **이야기:** 봄 한때, 관광 버스와 꽃놀이객들이 이 깡시골에 교통 체증을 만든다. 지역 휴게소 사쿠라노사토의 이름 유래가 되기도 한 '갓센바의 시다레자쿠라(늘어진 벚나무)'다. 이와시로 지역의 관광 명소라고 하면 이곳을 꼽는 사람이 많다. '이와시로'라는 지명은 몰라도, "그 벚나무는 안다"는 후쿠시마현 주민도 적지 않다. 이 '갓센바의 시다레자쿠라'는 무려, 추정 약 190년 전에 미우라 가문의 부지 내에 심어진 개인 소유의 나무다. 요시로 씨는 그 미우라 가문의 제14대 당주다. 당시 이 지역에서 성행했던 양잠업이 쇠퇴하고, 지역의 활기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여, 이 벚나무를 지역 재생의 불씨로 삼으려고 결심하고 행동을 시작했다. 그렇다, 이 벚나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요시로 씨 자신이 원하고, 한 걸음 내디딘 것에서 시작된다. 1994년경부터 부부가 함께 벚나무 관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했지만, 1998년, 우연히 지나가던 사진작가의 눈에 띄어 '주간 현대'에 두 페이지에 걸쳐 실리면서, 그 아름다움이 전국에 알려져, 봄에는 수천·수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게 되었다. 보존회가 결성되고, 시 차원에서 벚꽃 축제를 개최하며, 라이트업도 한다. 관광 버스가 여러 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주차장, 약 1.6km에 이르는 '벚꽃 회랑'도 정비되었다. 꿈꾸던 활기는 드디어 실현되어, 이와시로 지역 제일의 관광 지역으로 올라섰다. 그때부터, 관람객과의 교류가 삶의 보람이 되어, 부부는 1년의 3분의 2를 벚나무 관리·환경 정비에 쏟아왔다. 매년 관람객 수와 관광 버스 대수를 스스로 세어 집계하고,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 **오른쪽 위 사진:**
  + 사진 속의 아저씨 미우라 요시로 씨는, 이와시로를 멀리 떠나 있는 요양 시설에서 우리의 취재를 따뜻하게... 아니, 열정적으로 받아주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재를 마치려는 우리에게 컴퓨터를 사용해 고향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아직 이와시로와 함께하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담긴 말이었다. 그 아저씨의 인생은 이와시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아저씨 도감'에 실린 다른 아저씨들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와시로의 삶이 자신의 피와 살이 되고, 정신을 만들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아래 글:**
  + 80대가 된 부부가 각각 병을 얻어 다른 시설에 입소한 현재, 지역에 사는 조카와 보존회 회원들이 벚나무 관리를 맡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이상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요시로 씨의 마음은 항상 이 벚나무와 함께 있으며, 고향 이와시로를 몹시 그리워한다. 이 책자를 만드는 데 있어, 요시로 씨가 회고한 "이와시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을까"라는 말은, '땅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전설의 이와시로 아저씨의 한마디다.

**15페이지 요약:**

이 페이지는 '전설의 아저씨'로 불리는 미우라 요시로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아저씨는 자신의 집 벚나무를 마을의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었고, 덕분에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어요. 지금은 몸이 불편해져서 고향을 떠나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마을과 함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저씨들이 얼마나 지역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줘요.

### **16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아저씨의 중얼거림.
* **본문 내용:**
  + "어떤 직업을 택하든, 40년이나 일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할 따름이야. 다른 인생은 생각할 수 없어."
  + "이전까지는 단풍 따위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눈에 들어와.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거야."
  + **"아저씨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 "빛을 그리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빛과 그림자가 모두 있어야만 비로소 형태가 생긴다."
  + "명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없다."
  + "살아갈 수 있어!"
  + "오래 사는 비결은 죽지 않는 것이다."
  + "다 함께 돕는다."
  + "그것은 바꿔 말하면 혼자 잘난 척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 "폐쇄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 "인생의 모토는 기백과 신념."
  +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와시로에 오면 서로 돕는 것을 배울 수 있다."
  + "취미는, 돌아가신 아내가 물려준 산야초 재배와 감상."
  + "현실 세계는 힘든 일이 너무 많다."
  + "화가가 되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지금도 내가 화가라고 생각하지 않아."
  + "입버릇은 '다 함께'."
  + "중얼거림은 명언과는 다르다. 속담도 아니다. 그래서 선행적이거나 도덕적이지도 않다. 교훈도 없을지도... 흔히,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일지 설교로 받아들일지는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 "하지만, 역시 의미 없는 그냥 중얼거림일지도?"
  + "당신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 **아저씨에게 묻고 답하다 (Q&A)**
  + **Q:** '아저씨'로 업데이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 **A:** '아저씨'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최소 35세 이상의 사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35년간의 실패나 성공, 즐거운 일 등을 경험하고, 저장 공간을 늘리도록 노력합시다. 다만, '아저씨'는 체력 저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외부와의 연결도 활용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하면 '아저씨' 본연의 장점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 동작이 느려진 것 같습니다.
    - **A:** 기초 체력을 길러둡시다. 특히, 최근 젊은이들은 앉아서 일하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더욱 건강한 메모리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몸은 20세 이후와 50세 이후 두 단계로 체력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근육량은 10대까지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체력 저하에 개인차가 생기는 것은, 평소 운동 습관의 영향도 있으므로, '젊은이' 버전을 사용 중인 분들은, 체력 메모리 증설을 꼭 검토해 주세요.
* **아저씨가 되어서 좋았던 점?**
  +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
  + "작년과 올해의 체력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되었어.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매일 8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어!"
  + "30대가 되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해."
  + "아버지가 전사하고, 장남인 나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했어. 농사만으로는 이익이 나지 않아도, 해야만 했지. 특별한 취미도 없이, 일하고 일하고 일한 것이 내 인생이야."
  + "지금이 되어서야 겨우 세상의 일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
  + "젊을 때는 부끄러웠지만, 나이를 먹으니 뻔뻔하게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어. 나이 든 사람의 강점이지."
  + "젊을 때 농업이라고 하면 소였는데, 지금은 핸드 트랙터. 가죽 신발 신고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 변화의 한가운데를 살아왔구나."
  +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 또한, 중용의 미덕을 서서히 갖추게 되었다."
  + "젊을 때처럼 무모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여유가 생겼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조언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 "좋은 점은 없어."
  + "시야가 넓어져서 다각적으로 보게 되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16페이지 요약:**

이 페이지는 아저씨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을 담아냈어요. "아저씨가 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처럼, 이들은 나이를 먹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또한, 아저씨가 되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말해주는데,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 **17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이제 당신도 아저씨! 아저씨 스타일 포즈
* **본문 내용:**
  + 크게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
  + 어려우면 주먹을 쥐고 파이팅 포즈도 좋다.
  + 선글라스가 있으면 더 좋다.
  + 셀카
  + 인카메라를 사용한다.
  + 손을 뻗어 촬영한다.
  + 약간 아래에서 찍는 것이 포인트.
* **이와시로 아저씨의 서식지**
  +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 이와시로 지구
* **이와시로 관광협회 회장**
* **"사람이야말로 이와시로의 보물이다!"**
* **이와시로 관광협회 회장의 인사말:**
  + 후쿠시마현 내에서도, "이와시로가 어디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정도로 마이너한 곳이다. 그러나 이와시로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자원이 있고, 본래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면, 코로나를 계기로 관광객도 이주민도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풍부하고, 유명한 문인이나 위인도 배출해 왔다. 그러한 선조들의 위업이나 역사를 발굴하여 세상에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지역 사회를 이끌며 활기를 불어넣는 여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이와시로 관광협회의 역할이다. 이 책자에서 소개된 분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와시로를 알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이와시로 사람들은 성실하고 어떤 일에도 겸손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정이 두텁다. 마음 가는 인물을 찾았다면, 꼭 만나러 와 보길 바란다. 술이라도 한잔 나누며 친분을 쌓고 싶다. 그러면 기꺼이 환대해 줄 것이다.
* **마을의 축제는 사회의 축소판?**
  + **오하마의 문장 축제와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 예비군'들.**
  + **젊은이(코와카):** 초등학생, 중학생. 축제 때는 북을 짊어진다. 축제 한 달 전에는 밤에 북 연습을 한다. "고맙다"는 말이나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면, 수고한 만큼 용돈을 받는다.
  + **젊은이(와카렌):** 20세 전후. 축제의 진행을 맡는다. 축제의 핵심이며, 이웃이나 선배들과 약 2개월에 걸쳐 축제를 만들어간다. 지역의 기대를 등에 지고, '아저씨'가 된다.
  + **신사 총대 · 대감(오사반):** 아저씨의 최종 목표. 과거 축제에서 활약했던 리더 역할을 한 사람 중에서 선출된다. 지역의 핵심이 되어 일을 주도한다.
  + **이야기:** 이번 인터뷰에서, 많은 아저씨들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축제'였다. 시골의 축제는 도시의 축제와는 조금 다르다. 축제라고 해도,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형식이 있는 반면, 이와시로의 축제는 그야말로 지역을 위한 축제가 많다. "축제는 사회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한 아저씨도 있었다. 과거에 아이였던 아저씨들은 축제를 통해 학교와는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나 역할을 배웠고, 젊은이들은 지역과 자신의 존재 방식을 찾아간다. 그리고 아저씨가 되면 젊은이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나이가 들면서도 옛 친구나 이웃과 함께 활동하고, '축제'라는 하나의 공동 작업을 해내는 모습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공동체일 것이다. 어른이 되어 타인과 진심으로 악수하고, 포옹하는 경험은 정말 드물다. 그런 공동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젊은이들은, 분명 이 땅에서 아저씨가 될 것이다.

**17페이지 요약:**

이 페이지는 이와시로 마을의 지도와 관광협회 회장의 인사말, 그리고 마을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회장님은 이와시로의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며, 아저씨들의 따뜻한 마음과 환대를 강조해요. 또한, 마을의 축제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마을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행사라고 설명해요.

### **18페이지**

**원문 텍스트 번역:**

* **제목:** 미래의 아저씨에게
* **본문 내용:**
  + **이와시로 관광협회 회장의 이야기:**
    - 급격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현재에도, 미우라 씨의 미래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다. 이와시로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 자원이 있고, 본래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면, 코로나를 계기로 관광객도 이주민도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 ─ 기세 좋은 사투리로 당연한 것을 태연하게 말하면 어리둥절하게 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있다. "'평생 현역으로 인생을 완수할 수 있는 곳이 이와시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명언 같은 말이나 농담이 툭툭 튀어나온다. "예술은 폭발이다!"로 알려진 오카모토 타로에게도 뒤지지 않는 박력이다. 마이크를 들면 말이 멈추지 않는다. 게다가 전부 즉흥적이다. "백화요란! 지역에 꽃을 피우자!", "이와시로를 지키자. 목숨이 있는 한, 기백과 신념으로!", "만사 공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 추상적인 구호뿐만 아니라, 현실의 사례나 숫자를 인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본 전국, 그리고 전 세계의 지역 발전 사례를 포착할 만큼 안테나가 높다!
  + **오지상(아저씨)이 되는 것은?**
    - 사람은 언제부터 아저씨가 될까? 하쿠호도 생활종합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는 40대에 70% 이상, 50대가 되면 80% 이상이 자신을 '아저씨'로 인식한다고 한다. 또한, "몇 살부터 아저씨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저씨'의 평균 연령은 35~45세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생 백세 시대, 사람은 '아저씨가 되고 나서'의 시간이 더 길다.
    - 한편, 최근에는 '노추(늙은 사람의 추함)'라는 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졌다. 나이를 먹고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 나이나 경험을 방패 삼아 실권을 계속 쥐고 있는 노인,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폐를 끼치는 고령자를 가리키는 인터넷 속어다.
    - 그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은 아니더라도,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요즘 젊은 것들은..."이 정형구였는데, 여기에 와서 "요즘 아저씨들은, 아줌마들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 우리도 언젠가 나이를 먹겠지만,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산과 계곡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데도,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라고 쓸데없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 그렇다. 당신도 나도 언젠가 반드시 '아저씨(또는 아주머니)'가 된다. 사랑하는 연인도 남편도, 귀여운 아들도 조카도, 좋아하는 아이돌도, 모두 언젠가 아저씨가 된다. 인간은 게임 캐릭터처럼, 경험치를 쌓으면 순조롭게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공격력이나 방어력 게이지가 늘어나지도 않고, 필살기를 배울 거라는 보장도 없다. 애초에 인생은 '강해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길을 가는, 우리 모험가 일행은, 자신이 노추가 될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어딘가 '아저씨'를 다른 생물처럼 분리해서 보려는 순간이 있다.
    - 2016년 큰 인기를 얻은 드라마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에서, 이시다 유리코가 연기한 중년 여성이 젊은 여성에게 "아줌마!"라고 싸움을 걸리자 이렇게 되받아친다. "지금 당신이 가치가 없다고 잘라버린 것은, 앞으로 당신이 향해 갈 미래이기도 해. 당신이 바보 취급했던 것에 당신 자신이 되는 거야. 당신 자신에게 저주를 걸지 마."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언젠가 늙어가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현실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정신 차려 보니, 청년기 같은 체력이나 젊음은 사라졌는데, 시대는 항상 계속 진화한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라는 모험'을 완수해야 할까?
    - 우리는 이 책자에서, 모든 아저씨가 선하고 멋진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애초에 수십 년을 살아온 아저씨는 그렇게 단순한 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한편, 다양성이 외쳐지고 있지만, 다른 가치관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쉽거나, 사람들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깨달음을, 지혜를,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아저씨'들이 많이 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 인터넷에는 없는 세상. 그것들을 마음의 영양분으로, 피와 살로 바꾸어, 우리도 개성 있는 아저씨가 되어가자.
* **왼쪽 아래 글:**
  + "자차는 JAGUAR"
  + "체력의 원천은, 본인 말로는 '소주를 자주 마시는 것'."
  + "오지 상" (아저씨), "오지사마" (존경어), "이케오지" (멋진 아저씨), "옷상" (아저씨)
  + 미래의 아저씨에게, 당신을 기다리는, 아저씨의 문.

**18페이지 요약:**

이 페이지는 '미래의 아저씨'가 될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이와시로 관광협회 회장은 "여기서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될 테니, 나이 든 사람들을 얕보지 말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자고 말해요. 이 책이 바로 그 지혜를 얻는 길잡이가 될 거래요.